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정 확정, 후보등록 3월 27일부터

“공명정대하고 금권없는 선거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교 목사)가 지난 7일 총회 본부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갖고 선거 일정 등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2회 총회 임원선거 일정 등에 대한 사항 등이 논의되며 결의되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된 선거일정은

오는 3월 27일(월)과 28일(화) 양일간 임원후보 접수를 시작으로 29일에는 서류 자격심사와 등록확정 후, 3월 31일(금)에는 기호추첨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4월 22일 0시부터 5월 21일 자정까지 공명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후보자 정권 발표는 4월 13일(목)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선거위원회 김원교 목사는 “공명정대하고 금권없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위원회도 노력해 주어야 하겠지만 유권자들과 후보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선거기간 동안 교단의 구성원들이 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국내선교위원회, 제10기 교회개척학교 개강

인큐베이팅 통한 교회개척 준비 지원

국내선교위원회(이하 국선위)는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의 일정으로 교단내 교회개척 희망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10기 교회개척학교를 진행했다. 강화도 소재 화이트하우스에서 진행된 개척학교는 총 7명이 입소해 교회개척에 대한 열의를 다졌다.

전승학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강에 배에서는 부위원장 위성섭 목사의 기도와 성경봉독 후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엡 4:1)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성결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선위 사무총장 고신원 목사가 진행한 2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위원장 송용현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총무 최운경 목사가 진행한 순서를 맡았다.

끝낸 개척학교에서는 성화교회 유선태 목사가 감사로 나섰으며, 개척토크쇼에

는 신림제일교회 김영복 목사, 생수교회 손명선 목사, 사림의교회 강정규 목사가 나서서 토크를 인도했다.

한편 지난해 입학해 교육을 마친 9기 수료생들도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국선위의 한 관계자는 “교회개척 학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올해에도 준비된 사역자들이 많이 모였다”며 “최종 선택된 전선택 목사는 향후 1년여간 국선위에서 제공하는 멘토링과 인큐베이팅 시스템 아래서 교회개척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년간 교회개척학교를 통해 31개의 교회가 새롭게 창립했다.

제102회 총회, 오는 5월 22일 성결대서 오후 1시 개회예배

총회준비위원회, 첫 모임 갖고 ‘성 총회’ 다짐



제102회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조일구 목사·이하 준비위)가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돌입했다. 준비위는 지난 6일 오후 4시 총회본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성총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준비위원장 이종만 목사는 “거룩한 총회,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들은 각 분과별로 담당자를 선정하고 분과장을 중심으로 총회 준비를 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성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102회 총회가 열리는 장소는 코로나 이전대로 성결대학교에

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개회예배는 오후 1시에 드려지며, 대의원비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동결해 15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시와 장소가 정해짐에 따라 이후 일정은 각 분과별로 개별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한 후 전체회의를 통해 준비작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준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조일구 목사 △부위원장 이종만 목사 △서기 김성철 목사 △진행분과: 이명화 유용열 이충동 김성진 목사 △기획분과: 조기현 권순달 김홍식 송용현 목사 △집시유지분과: 김은균 이두성 김동환 목사.



동정



총회장
신현파 목사

3. 2 한성연 교단본부 헌판식
- 3 목동극동방송 신사목이전 감사예배
- 6 총회성결교신학교 입학식 및 학장 이취임식
- 총회임원회의
- 9 교단 여목회지회 총회
- 2차 성결인의 전도대회 발대식 (양양교회)
- 14 나사렛성결회 교단총회 축하
- 15~16 웨슬리언교단장협의회 참석
- 17 원로, 명예장로회 총회
- 18 정현숙 목사 원로목사추대식
- 23 성결신문사사장 이취임식
- 25 군산 한미음교회 장로임직식



총회본부 ARS 대표번호
1600-0695

총회성결교신학교, 새로운 리더십 교체

신임학장 김순홍 목사 취임… 주신 소명 사명으로 완수



전임학장 윤맹석 목사(우)로부터 교기를 인수 받고 있는 신임학장 김순홍 목사(좌)

총회성결교신학교 제14대 학장 김순홍 목사(일산동광) 취임예배가 지난 6일 총회본부 대예배실에서 드려졌다.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성결사편집장 장종용 목사의 기도 후 총회장 신현파 목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 총회장은 “우리를 밝히 인도하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

길 바란다”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미,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사회 서기 신동선 목사의 사회로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김순홍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으니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충

실히 임하겠다” 말하고 “주님과 사귀면서 일하고,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며 교제를 나누고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격려사를 전한 직전총회장 이상분 목사는 “다음세대 양육에 기쁨을 더하고 즐거움이 더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며 “온 학우들의 마음을 모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부총회장 조일구 목사도 “새로운 학장을 통해 총회성결교신학교가 가뭄을 진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교단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축사를 전한 김순갑 목사는 “오늘 취임하신 학장님과 함께 낱아 오를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지방장로회는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날 취임한 김순홍 목사는 성결대 학교, 성결교신대원을 졸업하고 에스라성경연구원, 성결대 신학전문대학원(Th.D)을 졸업했다. 동광제일교회 전도사 부목사를 거쳐 일산동광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시무중이다.

한성연, 각교단 총회본부서 헌판식 가져



한국성결교회연합회의 헌판 제막식이 지난 2일 본 교단을 비롯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총회본부에서 개최됐다.

한성연 헌판은 세 교단의 연합과 일치 의미의 상징적으로 담아 하나의 심볼마크로 제작됐다. 예성의 심볼인 꽃잎과 원을 기성의 심볼인 가시와 백합화, 나성의 심볼인 비둘기와 불꽃을 상징화했다.

한성연 대표회장이 시무하는 본교단 총회본부에서 첫 시작을 알린 헌판 제막식에는 3개 교단의 총회장과 감독, 임원과 직원들이 참석해 한성연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신 총회장은 3개 교단의 연합으로 성결복을 전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성 감독 윤문기 목사는 “오늘 이모

임은 함께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3개 교단이 함께 모여 연합을 이루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모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3개 교단이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연합되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성 김주원 총회장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필요한 이 때에 성결이란 이름으로 다시 코로나 이후를 물들인다고 생각하니 감사하다”며 “3개 교단이 헌판식 뿐만 아니라 같이 사역도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헌판식은 오전 10시 본 교단을 시작으로 낮 12시 나성 총회본부와 오후 2시 기성 총회본부까지 릴레이로 진행됐다. 한성연은 앞으로도 교단의 연합과 성결복을 전파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



회장 김문식 목사
고령교회

- 부회장 서규환 목사(평성교회)
서기 서봉수 목사(속초중앙교회)
부서기 이장록 목사(자람교회)
회계 박찬규 목사(원주신흥교회)
부회계 김국현 목사(풍성한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경기남지방회



회장 박헌재 목사
대덕교회

- 부회장 심상훈 목사(고온교회)
부회장 임종민 장로(오산교회)
서기 한재환 목사(예수광교회)
부서기 윤상철 목사(목신교회)
회계 김태성 목사(푸른초장교회)
부회계 김태호 목사(송안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전북동지방회



회장 김정오 목사
예심교회

- 부회장 문승균 목사(소중한국교회)
부회장 소병욱 장로(호남교회)
서기 강명복 목사(주영광교회)
부서기 김노별 목사(호남교회)
회계 성성환 목사(임마누엘교회)
부회계 전경덕 목사(대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천안아산지방회



회장 김성택 목사
사랑의교회

- 부회장 이종식 목사(임장중앙교회)
부회장 문진숙 장로(두루교회)
서기 이양표 목사(승리교회)
부서기 한익상 목사(든든한국교회)
회계 오선택 목사(하늘정원교회)
부회계 홍승표 장로(천안복음과성명교회)